

# 어학연수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 1. 기본정보

학과	██████████	이름	이유경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벤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파견기간	8월 ~ 12월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제가 다닌 학교는 langara college로 규모가 크지 않은 학교입니다. 학교는 작지만 있을 건 다 있는 실속있는 학교입니다. 학교 직원분들 모두 다 친절하시며 학교로 깨끗합니다. 교통편도 좋습니다. 또 다양한 나라사람들이 있어서 많은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수업	수업은 leap program을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레벨테스트를 본 후 반이 결정됩니다. 레벨에 따라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지며 하루에 4시간씩 수업을 합니다. 라이팅, 리스닝, 리딩, 스피킹위주의 수업이며 15명정도의 학생들과 듣습니다. 이 수업은 세션제로 한 세션당 7주동안 수업을 듣습니다. 세션 마지막 날에는 반이 향상될 수 있는지 평가하는 final test를 봅니다. 그 후 약 9일간의 짧은 방학을 가지게 됩니다.
프로그램 운영	외국학생들을 위한 international office가 따로 마련되어있어서 학교 생활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을 때마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을 쉽게 사귀어 볼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은 만들어주셔서 친구 사귀거나 스피킹 공부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내 관계자분들은 다 친절하셔서 편하게 학교 생활하였습니다.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8월부터 10월 초까지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초여름날씨나 초가을 날씨입니다. 그 이후로는 우기에 접어드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추웠습니다. 여름 옷보다는 겨울 옷을 많이 챙겨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	밤 늦게 혼자서 다니지만 않으면 벤쿠버 거리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다운타운 차이나타운에 홈리스들이 몰려있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만 가지지 않는다면 안전한 벤쿠버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숙소	저는 홈스테이에서 지냈는데 두 분은 캐네디언이었습니다. 홈스테이를 시작 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두분 다 너무너무 친절하셔서 4개월 동안 너무 편하게 지내다 왔습니다. 집도 깨끗하고 아늑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식사	아침 저녁은 홈스테이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아침은 아메리칸식인 시리얼, 토스트, 오트밀 등을 먹었고 저녁은 스테이크, 햄버거, 커리, 피자 등 다양한 음식 먹었습니다. 점심은 학교 가기 전에 제가 직접 샀는데 주로 샌드위치나 전날 저녁에 먹은 음식을 싸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인 저를 위해 홈스테이 분들이 김치도 사주시고 먹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부탁을 하면 사주셨습니다.
교통	홈스테이에서 학교까지 걸어 15분정도 걸려서 걸어다녔습니다. 다운타운에 나갈 일이 있으면 스카이트레인(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교통체증도 없고 빨라서 좋습니다. 그리고 거리도 스트리트 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길 잃을 일도 없고 편합니다.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210만원	
숙소	\$750	한 달치
교통비	\$21	대중교통을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교통패스 10개 사서 필요할 때 씬 10개로 보름 정도 씬
책값	5만원	읽을 책
기타1	\$38 tax 포함	핸드폰 비
합계	\$809+215만원	

## 5. 출국 전 준비사항

8월에 가는 사람들은 10월중순부터 날씨가 양좋아지니 그전에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벤쿠버는 인종이 다양하게 모여살고 있습니다.

홈스테이 가족들에게 줄 작은 선물을 준비하면 좋은 것 같다.

8월에 가시는 분들은 여름 옷은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가을이랑 겨울 옷을 많이 챙겨가세요 그리고 눈보다는 비가 많이 오니 레인부츠나 레인코트를 챙겨가면 좋습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벤쿠버 도착하기 전에는 파란 눈과 노란 머리를 가진 외국인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있어서 놀라웠습니다. 다양한 인종덕에 여러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었고 거기다 여러 나라의 음식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역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있었습니다. 제가 4달 동안 들은 수업은 LEAP 프로그램으로 캐나다의 university를 가기 위해 듣는 프로그램으로 writing, listening, speaking, reading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수업은 매주마다 주제를 정해서 캐나다와 관련된 이야기를 수업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다음날 수업을 위한 숙제를 많이 내주는데 숙제가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제가 끝이 나면 listening, writing 테스트를 보아서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숙제가 많아서 평일에는 주로 집이나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며 노는 건 주로 주말에 다운타운에 나가서 놀거나 가까운 곳을 여행하러 다녔습니다. 다운타운의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관광지를 돌아보고 한 세션이 끝나고 방학기간인 9일 동안에는 벤쿠버가 아닌 캐나다의 다른 지역을 여행하기도 했습니다. 벤쿠버는 6월부터 9월이 제일 날씨가 좋은 기간인데 8월 마지막 주에 도착해서 벤쿠버의 날씨를 즐기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아닌 새로 환경,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 너무나 소중한 경험을 얻었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빅토리아 여행 (parliament)



이영표 선수 팀 축구경기 관람



홈스테이 가족들과 할로윈데이



학교에서 한국과 순천향대 홍보



홈스테이 가족들과 파티



세션 마지막 날 반 친구들과